오음이 허망함을 안다는 것은…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㊼ 오음의 생멸

〈원문〉 "아난아, 변화하는 이치가 머물지 아니하고 움쩍움쩍 은밀히 옮겨지며 손톱이 자라고 머리털이 길어지며 기운이 없어지고 얼굴이 주름져 밤낮으로 늙어 가지만 일찍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난아, 행음(行陰)이 네가 아니라면 어떻게 몸이 달라지며, 만약 반드시 너라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너의 행음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으니 이름하여 그윽하고 은밀한 네 번째 망상이니라. 또 너의 알차고 밝고 고요하여 동요치 않는 곳을 항상한 것이라 할진대 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약 진실로 알차고 참된 것이라 한다면 망령된 습기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일찍이 옛적에 한 기이한 물건을 보고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다가 뒤에 다시 보면 기억이 완연하여 잊어버리지 않나니 생각마다 훈습을 받은 것을 어찌 계산할 수 있겠는가?

아난아, 이 다섯 가지 받아 들이는 음이(五受陰)이 다섯 가지 망상(五妄想)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오음이 원래 중첩하여 생겼으며, 생기는 것은 식을 인하여 있고, 멸하는 것은 색으로부터 제거되느니라. 이치로는 단박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고 아울러 소멸하거니와 사실에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차제를 인하여 다하느니라."

〈강해〉 〈능엄경〉 10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음망상(五陰妄想)이다. 오음이 망상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음이 다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신비한 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미혹해지면 올바른 선정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의 본문은 행음과 식음에 대하여 말한 대목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오음이 소멸할 때는 색음부터 없어져 식음에 이르는데, 생겨날 때는 식음에서 시작하여 색음에 이른다는 생멸의 과정이 반대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오음이 변제(邊際)가 있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없어진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생길 때 식음(識陰)에서 시작하여 행음, 상음, 수음, 색음으로 생기며 깊은 선정을 닦아 오음이 소멸할 때는 색음부터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옷을 입고 벗을 때 입을 때는 속옷부터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겉옷부터 먼저 벗는다는 논리와 같은 말이다.

지난 옛적에 보고 들었던 것을 여러 해가 지나서도 기억이 나는 것을 행음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생각마다 훈습(熏習)되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진행되듯이 행음의 작용이라는 뜻이다. 물론 식을 설명할 때도 상속식(相續識)이라는 말이 있다. 〈기신론〉에도 나오는 이 말은 한 번 일어난 망념이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망념을 일으켜 단절되지 않는 식(識)의 성질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도 물론 행음이 관여하는 것이다.

선어록에도 많이 인용하는 〈능엄경〉 4구게(四句偈)라고 말하는 사구 송이 이어 설해졌다.

"理則頓悟 乘悟併銷 事非頓除 因次第盡" 이치로는 단박에 깨닫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면 그만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단박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어서 차제를 인하여 다해진다는 것이다. 흔히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수행법을 말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으나 〈능엄경〉에서는 오음이 모두 허망한 줄 아는 것은 한꺼번에 아는 것이라 깨달음을 타면 아울러 소멸할 수 있지만 오음을 실제로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하나 차례로 닦아서 다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선수행에 있어서도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문제를 두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두 견해가 있고, 구봉 종밀(圭峰宗密: 780~841) 〈선원제전집〉에는 7대 돈점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경전에 설해진 수행 방법은 돈오점수다. 물론 중국의 선종 가운데 임제종을 수립한 임제 의현(臨濟義玄:?~867)은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여 임제종풍의 기치를 삼았지만 간화선을 완성한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는 그의 어록인 〈서장(書狀)〉에서 능엄경 4구게를 여러 차례 인용 소개하기도 하였다.〈끝〉

〈반야불교연구원장〉

법념처관 기틀 갖추게 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㊼ 11~13번째 삼각형 그리기

한물건과 쿤달리니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느껴본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한물건을 중극으로 끌어올린다. 숨을 내쉬면서, 중극에서 황정과 명문을 함께 내려다본다. 좁게 형성된 삼각형의 내부 면을 지켜보면서 척추뼈의 감각과 척수 공간을 함께 느껴본다.

숨을 들이쉬면서 명문의 쿤달리니를 영대로 끌어올린다. 중극의 한물건과 영대의 쿤달리니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지켜본다. 그러면서 중극과 영대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간극을 주시한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과 간극의 형질을 비교해 본다. 똑같이 느껴지면 그 상태에 머물러서 쿤달리니와 한물건을 함께 비춰준다.

쿤달리니의 열감이 누그러들면 한물건과 쿤달리니를 중황으로 끌어올린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척수 순화를 이룬다. 안 몸과 바깥 몸 사이에 간극이 세워지고 법념처관을 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진다.

열한 번째 경로는 중극, 영대, 중황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하면서 식무변처정의 초입에 들어간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영대, 중황을 연결시키고 삼각형을 세워준다. 중황에 각성을 두고 중극과 영대 기점을 내려다본다. 삼각형의 내부를 인식하면서 흉수 5번과 흉수 1번 사이의 척수 감각을 들여다본다.

중황의 한물건과 척수 감각을 서로 연결시킨다. 천천히 유동하는 척수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경수 1번에서 시작된 척수의 요동이 흉수를 타고 요수로 내려가서 천수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척수의 요동에 장부가 반응하는 것을 함께 느껴본다. 척수 전체를 안 몸으로 삼고 중황 기점을 올려다본다. 머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는 식업들을 지켜보고 안 몸의 상태를 함께 주시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두부(頭部)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열두 번째 경로는 중황, 미심, 백회 라인이다. 머리뼈 순화의 장애를 극복하고 전두엽 피질과 시각 경로를 제도한다. 수인을 짓는다. 중황의 한물건과 미심, 백회 경로를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면 상태를 주시한다. 머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본다. 머리뼈가 변형되면서 생겨나는 통증도 비춰보고 오관으로 빠져나가는 냉기도 지켜본다. 증상이 해소되면 백회와 미심을 이어주는 사선에 집중한다. 사선에 각성을 두고 시각(視覺)을 일치시킨다. 사선에서 미심과 중황 사이의 공간을 내려다본다. 텅 빈 공간감과 보는 식의 작용을 함께 인식한다. 전두엽피질이 활성화되고 시각 경로가 제도된다. 백회와 중황 경로에서는 무념주를 인식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서 두정부의 상(像)과 이마부의 상(像)이 갖추어진다.

열세 번째 경로는 중황, 백회, 옥침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해서 머리뼈 순화의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피질을 제도한다. 중황의 한물건을 주시하면서 수인을 짓는다. 나선 호흡으로 백회에서 중황까지 숨을 들이쉰다. 백회와 중황 사이에 세워진 무념주를 인식한다. 중황에서 옥침으로 숨을 내쉰다. 옥침판의 자극을 인식한다. 옥침판으로 무심처를 삼는다. 백회, 중황, 옥침을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머리뼈 순화가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추어본다. 백회와 옥침을 연결하는 사선을 주시한다. 사선에 시각(視覺)을 일치시키고 무념주와 무심판을 함께 지켜본다. 시각피질이 활성화되고 보는 경로의 업식이 제도된다. 이 경로의 운용을 통해 두정부의 상(像)과 뒤통수의 상(像)이 갖추어진다.〈끝〉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㊼ 성불

모양은 모양이 아니다

팔만사천법문이 하나로 돌아가는 안내서인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해 오온을 가지고 수없는 행위의 반복으로 거듭나고자 하겠지만, 그 행위가 오히려 본질을 방해하는 줄을 어찌 가늠하겠는가. 가만히 앉아 허공을 보고, 흐르는 물로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이 따분한 것 같지만, 다시 구해야 하는 것 없으니,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부처를 향하려는 마음 또한 부질없는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서둘러 돌아갈 곳을 잊고 보니, 때에 맞게 주어지는 것 이외에 따로 찾아야 할 것 없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니, 세상이 나를 굴복시키는 것도 없다. 방편의 법문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하여도, 어찌 그 하나를 가리킬 수 있겠는가. 그 하나는 언어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수많은 말들이 마지막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처음에는 하고자 함이 약이 되나, 나중에는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총칼을 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처지와 같은 병이 되지만, 그 자신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다.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말 어디에도 없지만, 자신을 중생이라 자처하고 부처를 찾으니, 없는 부처를 어디에서 찾겠는가. 아상(我相)이라는 상이 있어 아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어 중생이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곳을 나오라는 말이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말로 들리니, 말하는 이가 황망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부질없다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과거에 지어놓은 기억의 잔재들이니, 될 수 있으면 세상의 일에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지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혀를 대어 변명하게 되면, 아직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꼴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스스로의 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문자 속에 있는 이치를 아는 것은 그대 스스로가 아니고 오온일 뿐이고, 말없이 그대로 실천하는 이가 바로 그대라는 것을 안다면, 문자 속에 있는 이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문자 속에 있는 이치를 실천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없이 실천하는 진리는 이치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일체 중생과 제불 여래께서는 모두 본래 청정한 자성 속에 머물러 있어서 증감도 없고 생멸도 깨끗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법에 상주하네. 그러므로 전후에 한 말은 모두가 교화의 방편이 아님이 없으며 결코 자성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네."

처음에는 상상으로 수행을 했더라도 마지막은 실천으로 끝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의 달콤한 꿀맛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에게도 그 꿀맛을 권하겠지만, 그 자신부터 완전히 감응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이들을 감응시킬 수 있겠는가. 실천에는 꿀맛은 없더라도 달리해야 하는 말들이 필요 없으니, 보는 이도 들을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서로가 따로 말할 것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안다면, 팔만사천법문이 따로 필요치 않음을 안다. 처음의 꿀맛이 잠시는 달콤하여 있는 듯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서로가 허전함을 느끼고 다시 달콤함을 찾게 되니, 달콤한 상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스스로가 세상에 있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기에, 아무리 많은 말을 하여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 문득 일어나고 사라지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때, 스스로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진다. 그때는 함박웃음으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꿈속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해소하고, 알게 하고, 속지 않게 함으로써 서로는 둘이 아니게 된다.

완전한 소통을 이루면, '나' 라고 하는 모양이 따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밖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더 이상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나타날 수 없다.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양으로 살지만, 그때의 모양에서 스스로의 모양이 아님을 알았으니, 다양한 모양들이 항상 보여주는 그 모양의 메시지를, '모양이 아닌' 메시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임을 바르게 안다. 모양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여, 청정한 그 모습을 왜곡시키지만 않으면, 모양이 모양 아님을 아는, 그 온전한 앎이 주어진다. 〈끝〉

〈(사)여시아문 선원장〉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